

21. 선비들의 성지(聖地) 오현단(五賢壇)³⁹⁾

◎ 2백년 근세(近世) 정신문화(精神文化)의 산실(産室)

◎ 굴림서원(橘林書院) 터엔 웬 주택들이 …

제주도 사람으로 오현단(五賢壇)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삼성혈(三姓穴)·관덕정(觀德亭) 등과 더불어 제주도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오현단이 생겨났느냐 하는 구체적 내력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제주도에는 동헌(東軒) 터를 비롯하여 사적이 집중되었던 몇몇 유적이 있지만 오현단도 바로 그런 명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 오현단 경내에 있었던 사적만 보아도 충암사(沖庵祠)를 비롯하여 굴림서원(橘林書院)·영혜사(永惠祠)·향현사(鄉賢祠)·장수당(藏修堂)·

39) 『한라일보』 제120호 (1989. 09. 09).



! 오현단(五賢壇) 모현암(慕賢岩)에 새겨진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마애각(磨崖刻) '증주벽립(曾朱壁立)' ! 성균관에 있던 휘호를 판관(判官) 홍경섭(洪敬燮)이 조각하였다.

경신재(敬信齋) · 고득종유허(高得宗遺墟) · 정원루(定遠樓) · 광풍대(光風台) · 모현암(慕賢岩)과 그 밖에 많은 비 등이 모두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덕(知德) 갖춘 오현(五賢) 배향(配享)

이곳을 오현단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먼저 충암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선조(宣祖) 때의 목사 임진(林晋)과 판관(判官) 조인후(趙仁後)가 협의하여 충암묘(冲庵廟)를 가락천(嘉樂泉) 동쪽에 세운 것은 1578년(선조 11)이었다. 충암(冲庵) 김정(金淨)은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1520년(중종 15)에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그 이듬해 10월 사사(賜死)된 젊은 학자였다.



증주벽립

그는 여섯 살부터 시를 짓기 시작했고, 아홉 살에는 이미 사서(四書)를 통달했으며, 19세에 사마시(司馬試)를 합격하고 22세에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한 천재였다. 그리고 34세에 이미 대신[형조판서(刑曹判書)]이 된 일찍이 없던 뛰어난 인물로 모두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그의 적소(謫所)가 가락천 동쪽 금강(金剛) 과원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충암사는 그 터에 세웠던 것이다.

그 뒤 충암사는 홍수 때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으며 또 교통도 불편 하였으므로 1665년(현종 6) 판관 최진남(崔鎭南)이 보다 높고 또 경관이 좋은 현 오현단 자리로 옮겨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이 터는 원래 영곡(靈谷) 고득중(高得宗)의 집터가 있었던 곳으로 당시 성내에서는 달관대(達觀臺)[공신정(拱辰亭) 경내]와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경관지였다.

그 뒤 1682년(숙종 8)에는 예조정랑 안건지(安健之)를 파견하여 충암묘를 굴림서원으로 사액(賜額)을 내리고 충암 김정 외에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중종(中宗) 때 목사(牧使)]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선조(宣祖) 때 안무어사(按撫御史)] 동계(桐溪) 정온(鄭蘊)⁴⁰⁾[광해군(光海君) 때 유배인(流配人)]을 종향(從享)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1695년(숙종 21)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숙종(肅宗) 때 유배인]을 추향하게 되어 비로소 다섯 현인(賢人)을 모시는 사당이 된 것이다.

현인(賢人)이라고 하면 어질고 슬기롭고 완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聖人) 다음으로 사표(師表)가 될 사람을 이름이니 중국에서는 공자(孔子)를 성인으로 받들고 그 다음으로 안회(顏回),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등을 현인으로 보아 공자묘(孔子廟)에 함께 배향(配享)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제주도와 인연을 맺은 학자 가운데 가장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다섯 분을 모셔 해마다 제사지내고 그 덕과 얼을 기리게 하는 것이다.

이 굴림서원은 비단 오현(五賢)을 모신 사당(祠堂)으로서 뿐만 아니라 강당 등을 마련하여 중등교육기관으로서도 큰 몫을 하였다. 굴림서원은 일종의 사학(私學)이라고 볼 수 있어 문묘(文廟)를 모신 향교(鄕校)와는 구분이 되지만 조선후기에 있어서 약 2백년 동안 이 땅의 정신문화를 일으킨 산실(産室)⁴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읍(三邑)의 향교와 더불어 제주도 선비들의 종가(宗家)요, 성전(聖殿)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굴림서원도 대원군(大院君)이 집정한 뒤 1871년

40) 신문에는 ‘정온(鄭蘊)’으로 되어 있다. ‘정온(鄭蘊)’으로 바로 잡음.

41) 신문에는 ‘산실(産實)’이라고 되어 있다. 필자가 ‘산실(産室)’로 바로 잡음.



오현단 조두석(제주시 이도일동)

(고종 8) 전국에 내린 서원철폐조(書院撤廢詔) 때는 헐리고 마는 운명이 되었다.

이때는 굴림서원 만이 아니었다. 제주도에 있던 삼성사(三姓祠), 송죽사(松竹祠), 의사묘(義士廟) 등과 함께 굴림서원 경내에 있던 영혜사(永惠祠), 향현사(鄉賢祠)도 동시에 헐리고 말았다.

지금은 비(碑)들만 남아

영혜사는 1669년(현종 10) 목사 이인(李瑔)이 굴림서원 바로 옆에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목사 이약동(李約東)과 이괴(李繪).⁴²⁾를 배향⁴³⁾ 하였

42) 신문에는 ‘이증(李禕)’이라고 되어 있다. ‘이괴(李繪)’로 바로 잡음. 이하 동일 사항 모두 수정.

43) 신문에는 ‘배양’이라고 되어 있다. ‘배향’으로 바로 잡음. 이하 동일 사항 모두 수정.



오현을 모시던 굴림서원이 1871년 철폐된 후 1892년 김희정을 비롯한 제주 선비들이 서원이 있던 뒤뜰에 제단 형식으로 다섯 개의 조두석을 세움.

는데 뒤에 목사 이형상(李衡祥)과 김정(金儼)을 종향하고 뒤이어 명도암(明道岩)의 학자 김진용(金晉鎔)을 추향하였다.

향현사는 1843년(헌종 9) 목사 이원조(李源祚)가 영혜사 동쪽에 창건하여 고득중을 배향하였으며, 그 6년 뒤에 영혜사에 모셨던 김진용을 이 사당으로 이향하였다.

이밖에 굴림서원 경내에는 1660년(현종 1) 목사 이괴가 세운 장수당이 있었는데 굴림서원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이 장수당도 굴림서원 철폐 때 함께 헐리고 그 자리엔 1875년(고종 12) 목사 이희충(李熙忠)이 경신재를 세웠다.

굴림서원 뒤편(남쪽)에는 모현암이 있는데 이 바위에는 1855년(철종 6) 판관 홍경섭(洪敬燮)이 변성우(邊聖遇)[납읍(納邑) 출신,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로 하여금 성균관에 있던 송시열의 휘호 ‘증주벽립(曾朱壁立)’



┆ 굴림서원묘정비 ┆ 1850년 4월 목사 장인식이 세움. 굴림서원은 1578년 제주판관 조인후가 충암 김정을 모시는 충암묘를 창건한 이래 1682년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등 4현을 모시고 굴림서원으로 사액됨. 그 후 1695년 우암 송시열을 추향함으로써 오현을 배향하는 사묘가 됨.



┆ 향현사유허비 ┆ 1843년 목사 이원조가 향현사를 창건하여 제주 출신 문인 고득중을 배향한 후 1849년 명도암의 김진웅을 추향함.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향현사가 철폐되자 1893년 제주판관 고경준 등이 유허비를 세움.

立)’을 탁본하여 조각하여 놓았다.⁴⁴⁾ 이 마애각은 지금도 뚜렷이 남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주도 유가(儒家)의 본산(本山)임을 무언으로 증언해주고 있다.

이 모현암 일대는 남성(南城)으로 이어지는 높은 언덕배기로 팽나무와 곰솔 등 고목이 우거져 글에 열중하던 선비들이 피로를 푸는 광풍대가 있으며 그 서쪽으로는 남문인 정원루로 이어지고 있다.

44) 변성우는 영조 때의 인물이다. 변성우가 탁본하여 집자해 놓은 것을 판관 홍경섭이 바위에 조각(모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문의 홍경섭이 변성우에게 탁본하여 조각해 놓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된다.



충암 김정 적려비 | 충암은 1520년 기묘사화로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1년 만에 사사됨.



우암 송시열 적려비 | 우암은 1689년 3월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6월 서울로 압송도중 전라도 정읍에서 사사됨.

이 일대를 오현단으로 부르게 된 것은 굴림서원이 헐린 21년 뒤인 1892년(고종 29) 김희정(金義正)을 비롯한 제주의 선비들이 서원이 있던 뒤뜰에 다섯 개의 조두석(俎豆石)을 세워 오현을 모시는 제단을 마련하면서부터라고 하겠다. 오현을 모시는 제사는 일제 때 까지도 이어졌지만 지금은 관심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 오현단에는 그 많았던 옛 건물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옛 사적을 대변(代辯) 해주는 굴림서원묘정비(橋林書院廟庭碑)와 향현사 유허비(鄉賢祠遺墟碑)가 뒤에 이 건된 김정(金淨)·송시열의 유허비, 김정(金倣)의 흥학비(興學碑) 등과 더불어 쓸쓸히 서있다.

서원이 있던 동쪽 길가로는 1970년대 들어서서 오현각(五賢閣)과 노

인당(老人堂)이 들어섰다. 그러나 바로 굴림서원이 있었고 그 많은 유적이 있던 자리엔 웬 주택들이 버젓이 들어서고 공설시장까지 들어섰다.

제주도의 근세 정신문화(精神文化)와 교육을 일으킨 성지(聖地)를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갈아뭇개버린 20세기 말의 제주인 들에게 뒷날 역사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